

2021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1차 순채문화재분과위원회 회의록

- ▣ 일 시 : 2021. 12. 21.(화) 14:00 ~ 15:30
- ▣ 장 소 : 문화재청 대회의실
- ▣ 출석위원 : 윤인석(위원장), 강동진, 김문수, 김이순,
김종헌, 나창순, 목수현, 신안준, 이광표,
이연경, 이현석, 이혜은(이상 12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 고지사항

1.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0조에 따라,
 -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법인의 상근·비상근 임직원 포함)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 위원께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합니다.
 -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12조 제5호에 따라 해촉 됨을 알려드립니다.
2. 또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 아울러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9조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에 따라 의결 방식은 분과위원장이 거수 또는 기명 투표 중에 선택하여야 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4.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회의내용은 기록·녹취되며 회의 결과는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목 차

【심의사항】

- | | | |
|---|----------------------------|--|
| 1 | 사적 「만해 한용운 심우장」 주변 현상변경 | |
| 2 |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

【검토사항】

- | | | |
|---|----------------------------------|--|
| 3 | 「옛 충남경찰서 체육관(상무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
| 4 | 「무유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 |

【보고사항】

- | | | |
|---|------------------------|--|
| 5 |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 |
|---|------------------------|--|

1. 사적 「만해 한용운 심우장」 주변 현상변경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사적 「만해 한용운 심우장」 주변에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만해 한용운 심우장」 주변에 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이 문화재 보존·관리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성북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2) 대상문화재명 : 사적 「만해 한용운 심우장」(제550호, '19.4.8. 지정)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29길 24
- (3) 세부내용
 - 대상위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동 226-103번지 일대
 - ※ 허용기준 : 1구역(개별심의)
 - 2구역(평지붕 최고높이 8m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2m이하)
 - 3구역(평지붕 최고높이 12m이하, 경사지붕 최고높이 16m이하)
 - ※ 이격거리 : 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0m이격
 - 신청내용 : 성북제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 역사공원 조성(2,797.6㎡)
 - 공동정비지구 : 테라스형 공동주택

구분	심의구역	전체
대지면적	8,720.88㎡	22,477.30㎡
건축면적	2,459.00㎡	7,888.39㎡
세대수	62세대 (현황 7세대)	195세대 (현황 70세대)
규모/최고높이	3동, 지하2층~지상4층 /12.9m	10동, 지하3층~지상4층 /12.9m

- 개별정비지구 : 단독주택

구분	심의구역	전체
대지면적	12,481.59m ²	40,116.30m ²
건축면적	-	-
세대수	78세대 (현황 110세대 중 존치 13세대, 신규 65세대)	326세대 (현황 315세대 중 존치 50세대, 신규 276세대)
규모/최고높이 (현황)	62동, 지상2층/10.2m (110동, 지상1층/4.8m)	179동, 지상2층/10.2m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신청내용은 사적 「만해 한용운 심우장」 주변의 주택지역을 재개발하고자 신청한 것으로, 1구역 개별 심의 구역 내의 사업 계획이 기본단계로 재개발 대상 가옥이 명확하지 않은 점, 문화재 인근 주택의 규모가 커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함

마. 전문가 현지조사 의견('21.12.9.) : 문화재위원 ○○○, ○○○, ○○○, ○○○, 문화재전문위원 ○○○

- 금번 제출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용만으로는 해당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아래의 자료를 보완한 후 재검토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해당 문화재 주변, 특히 북쪽에서 해당 문화재가 위치한 경사면을 조망한 경관 시뮬레이션 분석 자료
 - 북쪽 경사지에서 해당 문화재가 주변 건물들로 인해 가려 보이지 않는 도로나 골목길이 아닌 건물의 상부층에서 촬영하여 해당 개발지역의 전경이 모두 담긴 사진을 바탕으로 할 것
 - 심우장 북측 도로(성북로)에서 심우장으로 진입하는 골목길(성북로29길)에 접한 필지의 건물들 현황과 계획 반영 후 변경되는 사항(도로폭, 담장, 건축선, 경관 등)에 대한 전후 시뮬레이션 분석 자료
 - 개별정비지구 내 해당 문화재와 인접하는 주택 계획 시 해당 문화재의 왜소화 우려 등에 대한 분석 자료
 - 이와 관련하여, 단독주택의 경우 최고 높이를 기존 주택 용마루선을 넘지 않게 계획하는 방안을 권고
 - 공동정비지구 내 테라스하우스의 경우, 경사 지형을 잘 살리는 테라스하우스의 건축 특성에 맞는 설계안으로 조정할 것을 권고

바. 주변 문화재 관련 부서 검토 의견

- 사적 「서울 한양도성」 : 조건부 허가
 - 보호구역 내 건축물 철거 및 모든 건물은 양각 이하로 계획
- 사적 「창덕궁」 : 영향없음
 -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1구역에 해당하나 사업내용이 한양도성 너머에 위치한 점을 고려할 때 영향없음

사.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의견에 따라 추가자료 보완
- 출석 12명 / 보류 12명

2.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 제안사항

대구대학교 소장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위원회 등록 검토('21.10.26.)를 거쳐 등록 예고한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에 대하여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구대학교총장
- (2) 대상문화재

문화재명칭(안)	수량	규격 (세로×가로)	제작년대	소유자	소재지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	1점	21.3×13.4cm	1897년	대구대학교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 (3) 심의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1.7.23.) : 문화재 등록 신청(경상북도→문화재청)
 - ('21.9.30.)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21.10.26.) : 제9차 근대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검토 '조건부 가결'
- 명칭은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로 추진
- (5) 등록예고 : '21.11.4.~12.3.(30일간) * 의견 없음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로제타 홀 한글점자 교재는 1926년 훈맹정음(6점자)이 제정되기 전 시각 장애인 교육을 위해 최초로 고안한 4점자식 점자교재로서, 현존하는 유일한 원본이며 역사성, 희소성 등의 가치가 충분하여 등록 예고한 대로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1.9.30)

- 의료선교사이며 교육자였던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이 만든 점자로 된 한글 학습 교재로 로제타 홀의 후손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로서 그 출처가 확인되며,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특수교육, 사회복지, 점자출판, 의료선교의 역사 연구를 위한 귀중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 ○○○○○○ ○○○('21.9.30)

- 해당 유물은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이 창안한 우리나라 최초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인 한글 점자(평양 점자 또는 장림 보는 글씨) 체계에 따라 제작된 자료임. ① 1897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인에게 한글 점자를 가르치기 위해 제작된 자료이기 때문에 근대 우리나라의 교육사 및 특수교육 분야에서 유물로서 가치가 있음. ② 표지에 있는 로제타 셔우드 홀의 친필 메모를 통하여 제작 년도, 내용, 사용자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음. ③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점자가 사용된 실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물로서 가치가 있음. ④ 동일 유형의 문화재인 박두성의 훈맹정음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점자 형성과 변천 과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물로서 가치가 있음

○ ○○○○○○○○○ ○○○('21.9.30)

- ‘한글학습점자교재’는 로제타 홀이 1897년 뉴욕식 한글 점자를 개발하며 당시 배재학당 등에서 한글 학습서로 활용하던 「초학언문」을 기름떡인 한지에 바늘구멍을 내어 점역한 단 1권뿐인 교재로, 한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양각점자도서임. 더욱이, 그 제작 방법과 제작 목적, 교육 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점자판과 점필 등 점자 쓰기 도구가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이전의 점자교육 모습을 증명하는 유물로 그 가치가 높음. 최근 훈맹정음의 문화재 등재와 더불어 우리나라 점자 발전사의 첫걸음이 되는 ‘한글 학습점자교재’에 대한 문화재 등록이 요구됨

바.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출석 12명 / 원안가결 12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한글학습점자교재
2. 소 유 자 : 대구대학교
3.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대구대로 201
4. 수 량 : 1점
5. 규 격 : 21.3×13.4cm(세로×가로)
6. 재 질 : 유지
7. 제작년대 : 1897년
8. 조사자 의견('21.9.30.)

<문화재위원 ○○○>

1) 개요

- 의료선교사이며 교육자였던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이 만든 점자로 된 한글 학습 교재
- 해당 자료는 김정권 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가 1992년 ‘한국특수교육 100년사’ 집필을 위한 자료 수집차 미국을 방문하여 로제타 홀의 손녀로부터 받아 대구대학교 점자출판박물관에 기증한 것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 해당 유물은 포배장과 같이 앞뒤를 감싼 1장의 종이로 표지를 제작하였고 내지는 모두 9장으로 기름을 종이에 침투시켜 건조한 油紙의 일종으로 보이며 점자 구멍을 내어 표기하고 각 장마다 한글로 순서를 墨書하였음
- 표지에는 로제타 홀의 친필로 알려진 영문이 필사되어 있으며 내용은 ‘The 1st embossed book for the blind of Korea. Prinked by hand an oiled Korean paper before receiving the proper apparatus from the N.Y. Inst. for the blind 1897 and worn smooth by the fingers of the 1st blind child to learn to read in Korea 오봉늬 It consists of the syllabary and 1st six lessons of Mrs. Jones “Cho Hak Eunmun” = Korean primer’임
- * 조사자 번역 : 최초의 한국 맹인용 점자책. 1897년 N.Y. Inst. (뉴욕맹학교, New York Institute for the Education of the Blind를 말함)에서 기기(점자인쇄기)가 도착하기 전에 한지에 기름을 먹여 손으로 제작한 것이다. 한국에서 읽기를 처음 배운 맹아 오봉늬의 손에 의해 다 닳았다. 존스 부인이 지은 “초학언문”의 음절 문자와 첫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로제타 홀은 남편인 윌리엄 제임스 홀(William James Hall, 1860-1894)이 한국에서 의료선교사업 중 사망한 후인 1894년 미국으로 가 뉴욕맹학교(New York Institute for the Education of the Blind)의 윌리엄 벨 웨이트(William Bell Wait, 1839-1916) 교장에게 New York Point라고 불리는 4점식 점자에 대해 배운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New York Point를 응용한 4점 점자인 ‘평양점자’를 창안하고 평양맹학교를 운영함

- 오봉녀(오봉래, 미상-1918)는 로제타 홀에게 현대식 특수교육을 받은 맹인 여성으로 기독교 신자였던 오석형의 딸이며 1913년 일본으로 건너가 요코하마에서 밴패튼(Mrs. Van Patten) 여선교사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일어를 공부하였고 다음 해에는 동경맹학교 사범과에 입학하여 침술, 구술, 안마술 교육을 받고 교사자격증을 취득하였음. 1917년에 귀국하여 평양맹아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1918년 유행성 열병으로 사망함
- 초학언문은 본 유물의 표지에 Mrs. Jones로 표기된 미국 북감리교 선교사 마가렛 벙겔(Margaret J. Bengel, 1869-1962)이 저술한 초학자를 위한 한글 학습 교재로 1895년 초간본 발간 이후 수차례 간행되어 배재학당 등에서 교과서로 사용되었음. 모두 20개 공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공과에서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의 낱글자들을 익히도록 하고 있고 제2-3공과에서는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음절을 이루는 법, 제4공과에서는 ‘가지, 고기, 그림, 곡식, 나물, 능금’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단어를 익히도록 하고 있으며 제5공과에서는 ‘밥 가져 오너라’ ‘물 마셔라’와 같은 짧은 문장을 학습하도록 함. 제6공과부터는 독해 연습을 위한 짧은 글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제7-10공과에서는 교육, 위생, 인류의 중요성, 제11-16공과에서는 조선의 풍습과 지리를 설명하고 있으며 제17-20공과에서는 기독교의 교리를 서술함
- 본 유물의 수록내용은 표지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초학언문의 제6공과까지의 내용을 점자로 표기하였고 각 면차는 ‘데일-데구’까지 각 장에 한글로 필사하였음

면차(장차)	면차(필사)	초학언문 내용
1면	데일	데일공과 ㄱ ~ 데이공과 ㄴ
2면	데이	데이공과 마 ~ 데이공과 츠
3면	데삼	데이공과 카 ~ 데이공과 와워
4면	데스	데이공과 좌취 ~ 데삼공과 집
5면	데오	데삼공과 종 ~ 데스공과 당기
6면	데륙	데스공과 다리 ~ 데오공과 밥 가져오
7면	데칠	데오공과 물 마셔라 ~ 데륙공과 이 세상에
8면	데팔	데륙공과 죄업논 ~ 데륙공과 글공부
9면	데구	데륙공과 로 령혼을 ~ 데륙공과 데일이라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내지는 5장을 접어 실로 엮어 제본되어 있으나 3-7장은 탈락되어 있고 9면(2-9면)은 상단부가 다른 면에 비해 1cm가량 짧은 상태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내지의 탈락이나 일부 박락이 보이나 박물관 수장고에서 전문인력의 관리하에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음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초기 역사를 나타내는 유물로 역사적, 교육적 가치가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현재 동일 유형의 등록문화재로는 2020년 12월 4일 지정된 인천의 송암 박두성 기념관이 소장한 ‘한글점자 훈맹정음 제작 및 보급 유물’ 8건 48점과 국립한글박물관이 소장한 ‘한글점자 훈맹정음 점자표 및 해설 원고’ 7건 14점이 있음

- 훈맹정음은 1920년경 당시 서울맹학교 전신인 제생원 맹아부에 근무하는 박두성 선생이 중심이 되어 제자들과 함께 ‘조선어 점자 연구 위원회’를 조직하고 1926년 8월에 6점형 한글 점자를 제정하여 사용해 본 결과 그 우수성이 인정되어 1926년 11월 4일 ‘훈맹정음’이란 이름으로 발표한 것임
- ‘평양점자’로 불린 로제타 홀의 점자는 훈맹정음 제정 이전인 1897년 제작된 것으로 그 시기가 훈맹정음보다 빠르며 우리나라 점자교재의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중요 자료임

7) 등록가치의견

- 의료선교사이며 교육자였던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이 만든 점자로 된 한글 학습 교재로 로제타 홀의 후손으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로서 그 출처가 확인되며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서 특수 교육, 사회복지, 점자출판, 의료선교의 역사 연구를 위한 귀중 자료로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됨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신청명칭인 ‘한글학습점자교재’는 한글 학습을 위한 점자교재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통용될 수 있으므로 등록문화재 명칭부여 기준을 적용하며 ‘로제타홀 평양점자책’, ‘로제타홀 한글점자 교재’ 등의 명칭을 고려해 볼 수 있음

9) 참고문헌

- 김은솔, 한영균. "근대계몽기 한글 학습서의 표기와 음운 현상 - 『초학언문』의 세 가지 이본을 중심으로." 人文科學 120. (2020): 51-86.
- 문화재청. (2020년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대전: 문화재청, 2021.
- 정미정. 韓國視覺障礙實錄. 서울: 法賢, 2019.
- 탁지일. "시각장애인 교육의 선구자 로제타 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4 (2011): 87-104.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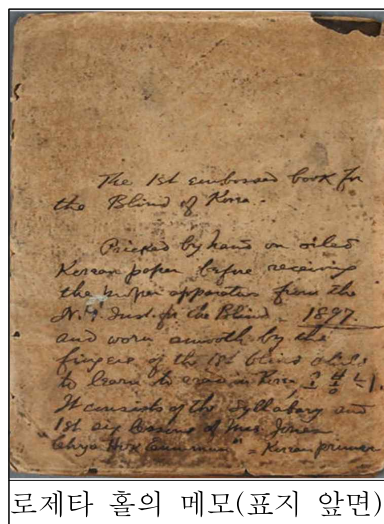
1) 개요

- 이 유물(한글학습점자교재)은 미국인 선교사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 한국명 허을(許乙), 이하 ‘로제타 홀’이라 칭함]이 1897년에 시각장애인 여성 오봉래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위해 「초학언문」¹⁾의 내용을 일부 선별하여 점자로 만든 자료임.
- 로제타 홀은 1865년 미국 뉴욕 리버티 출신으로 1881년 초등학교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고, 1886년까지 교사를 하였음. 이후 1886년부터 1889년까지 펜실베이니아여자의과대학(Women’s Medical College of Pennsylvania, WMCP)에서 수학하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였음.²⁾
- 로제타 홀은 어머니인 피비 길더슬리브 셔우드(Phoebe Gildersleeve Sherwood, 1829-1900)의 영향을 받아 뉴욕의 시각장애인 교육기관에서 봉사활동을 하였고, 이 경험을 통해 점자를 익혔음.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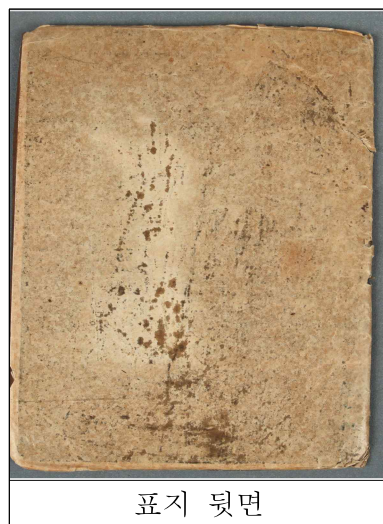
1) 초학언문은 선교사인 마거릿 벵겔(Margaret J. Bengel)이 집필한 기독교 교리서로 민간에서 편찬된 한글 학습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김은솔과 한영균(2020)의 「근대계몽기 한글 학습서의 표기와 음운 현상-초학언문의 세 가지 이본을 중심으로」 논문을 참조하기 바람

2) 박정희(2015). 닥터 로제타 홀. 파주: 다산북스, 92-116

- 1890년 미국감리회 해외여성선교회에 의료 선교사로 지원하여 서울에 도착하였고, 1892년 캐나다인 윌리엄 제임스 홀(William James Hall, 1860-1894)과 결혼하였음⁴⁾
- 1894년 5월 남편의 첫 신자인 오석형의 딸인 오봉래를 만나게 되고, 이것이 로제타 홀이 한국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시작한 직접적인 계기임⁵⁾ 6)
- 로제타 홀은 1894년 5월에서 6월까지 약 한달 간 오봉래에게 기름 먹인 한지에 바늘로 점을 찍어서 가르쳤고, 이 방법이 학습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⁷⁾
- 1894년 11월 청일전쟁의 부상병을 헌신적으로 치료하던 남편 윌리엄 제임스 홀이 34세의 일기로 사망하자, 1894년 12월부터 1897년 11월까지 한국을 떠나 뉴욕에 거주하였음⁸⁾
- 로제타 홀은 미국에 머물면서도 사별한 남편의 첫 신자인 오석형과 오봉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음
- 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문자인 점자의 원리와 구조를 익히기 위하여 1897년 뉴욕 맹학교(New York Institution for the Blind)를 방문하여 윌리엄 벨 웨이트(William Bell Wait, 1839 - 1916)교장으로부터 뉴욕 포인트식 4점 점자의 원리와 구조를 체계적으로 익혔음⁹⁾
- 1897년 로제타 홀은 뉴욕 포인트의 4점 형식에 따라 한글 점자(‘평양 점자’¹⁰⁾ 또는 ‘장림 보는 글자’¹¹⁾) 를 창안하였음¹²⁾ 13)
- 유물의 앞 표지에는 로제타 홀이 직접 메모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오봉래에게 「초학언문」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한국 최초의 점자 교재임을 밝히고 있음



로제타 홀의 메모(표지 앞면)



표지 뒷면

3) 탁지일(2011). 시각장애인 교육의 선구자 로제타 홀. *한국기독교신학논총*, 74(1), 87-104.
 4) 여주애(2020). 로제타 홀 선교사의 효사역에 관한 연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앞의 논문.
 6) 김병하(1986).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여사에 의한 한국 특수교육의 성립 사고. *한국특수교육학회지*, 7, 5-27.
 7) 앞의 논문.
 8) 앞의 논문.
 9) 김기창(2015). *한국시각장애실록: 개화기부터 2009년까지*. 서울: 법현. 13-20.
 10) 특수교육계에서는 박두성의 6점 형식의 점자인 ‘훈맹정음’과 구별하기 위하여 로제타 홀이 창안한 4점 형식의 점자를 ‘평양 점자’라고 칭하고 있음. 자세한 내용은 김기창(2015)와 임안수(2010)의 단행본을 참조하기 바람.
 11) 앞의 논문 김병하(1986)에 의하면 로제타 홀이 창안한 한글 점자의 명칭은 ‘장림 보는 글자’임.
 12) 앞의 책, 13-20.
 13) 임안수(2010). *한국 시각장애인의 역사*. 서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532-534.

- 현장 조사 당일(2021. 9. 30.), 이 유물의 최초 수집자인 김정권(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을 대상으로 수집 경위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김정권은 인터뷰에서 1992년 ‘한국특수교육 100년사’ 집필을 준비하면서 자료 수집을 위해 미국을 방문하여 로제타 홀의 손녀(필립스 킹)로부터 이 유물을 포함한 다수의 자료를 기증 받았다고 증언하였음
- 로제타 홀은 1890년부터 1933년까지 만 43년을 한국의 서울, 평양 등지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였고, 이 기간 중에 맹 여아와 농 여아를 위한 특수교육을 시작한 근대 한국 특수교육의 선구자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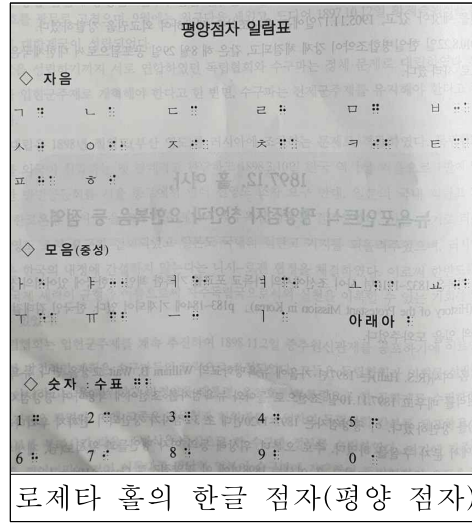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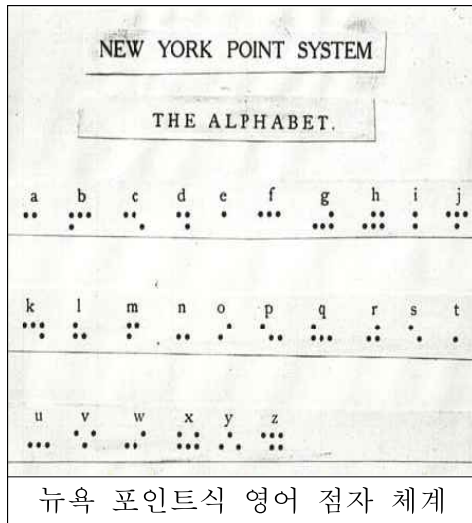
- 이 유물은 21.3×13.4cm(세로×가로) 크기이며, 종이의 재질은 기름 먹인 한지임. 표지와 속지로 구성되어 있음
- 표지는 앞뒤를 감싼 1장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로제타 홀의 자필 메모가 있음. 속지는 9장의 다소 두꺼운 기름먹인 한지로 구성되어 있음. 메모의 주요 내용은 ‘한국 최초의 양각 도서’, ‘1897년 제작’, ‘내용에 대한 간략한 소개(초학언문의 1절의 6과)’ 등의 내용이 기록된 것으로 보임
- 속지는 표지 보다 다소 두꺼운 기름먹인 한지 9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속지의 내용 구성 및 속지의 일부 예시는 다음과 같음

1면 : 데일공과 ㄱ ~ 데이공과 ㄴ
2면 : 데이공과 마 ~ 데이공과 츠
3면 : 데이공과 카 ~ 데이공과 와워
4면 : 데이공과 좌궤 ~ 데삼공과 집
5면 : 데삼공과 종 ~ 데스공과 당기
6면 : 데스공과 다리 ~ 데오공과 밥 가져오
7면 : 데오공과 물 마셔라 ~ 데륙공과 이 세상에
8면 : 데륙공과 죄업논 ~ 데륙공과 글공부
9면 : 데륙공과 로 령혼을 ~ 데륙공과 데일이라
속지 구성 내용

- 이 유물은 오봉래에게 한글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로제타 홀이 창안한 한글 점자(평양 점자)로 「초학언문」의 내용 중 일부 내용을 선별하여 점역하여 만든 것임. 제작 당시 점자를 찍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점 하나하나를 모두 바늘로 찍어서 만들었음^{14) 15)}

14) 김기창(2015). *한국시각장애실록: 개화기부터 2009년까지*. 서울: 법현. 13-20.

15) 임안수(2010). *한국 시각장애인의 역사*. 서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532-534.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비교적 원형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상태임. 다만, 바늘로 뚫어 점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점의 불룩한 형태는 무뎌져 있거나 구멍이 나 있음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대구대학교 점자출판박물관에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장기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이 유물은 로제타 홀이 창안한 한글 점자(평양 점자)체계에 따라 제작된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학습 점자 교재로 중요한 가치가 있음
- 이 유물을 통하여 한국근대특수교육사, 시각장애인 교육사, 여성 장애인 교육사 등의 관련 학문에서도 좀 더 활발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짐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1897년 로제타 홀이 창안한 한글 점자(뉴욕 포인트식 4점 형식)는 1926년 박두성(1888-1963)이 창안한 한글 점자(브라유식 6점 형식)의 ‘훈맹정음’ 보다 약 28년 전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점자 체계임
- 로제타 홀이 창안한 한글 점자는 ‘훈맹정음’이 창안되기 전까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 간에 두루 통용되어 시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문자 구실을 함¹⁶⁾
- 로제타 홀이 창안한 한글 점자가 있었기 때문에 박두성은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고¹⁷⁾, 이는 박두성이 ‘훈맹정음’을 창안하는 데 주요한 단초를 제공하였을 것이라 여겨짐
- 로제타 홀과 박두성의 한글 점자 체계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초창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인 점자 형성 과정 등에 대한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자료로 가치가 있음

17) 박정희(2015). *닥터 로제타 홀*. 파주: 다산북스, 92-116.

7) 등록가치의견

- 대구대학교가 소장하고 있는 로제타 홀이 만든 한글학습점자교재 1점을 조사하였음
- 문자는 인간이 지식과 정보를 받아들이는 주요 수단임. 특히,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문자는 세상과 소통하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
- 19세기 후반까지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은 문자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문자와 단절된 삶을 살았고, 이로 인하여 교육의 기회도 거의 없었음
- 로제타 홀의 한글 점자(평양 점자) 창안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들에게 처음으로 ‘문자의 세계’라는 새로운 세상을 열어 주었고, 혁명적이고 획기적인 사건이었음¹⁸⁾
- 로제타 홀이 선교활동을 하던 시기 우리나라의 사회적 맥락은 유교적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음¹⁹⁾
-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여성은 장애인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의 굴레 속에 교육의 기회가 박탈되어 사회적으로 열등하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음²⁰⁾
- 로제타 홀은 한글 점자를 창안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소외 받던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 여성의 교육을 시작하였고, 이를 계기로 시각장애인 여성이 정진 학교에서 일반학생들과 함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음. 이는 현재 특수교육에서 강조하는 사회 통합을 위한 교육 활동(통합 교육)이라 볼 수 있음
- 이 유물의 표지에 있는 로제타 홀의 메모에 따르면 오봉래는 점자를 통해 교육을 받은 최초의 시각장애인임. 오봉래에 대한 교육의 효과는 일반인들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러한 결과 평양에 시각장애인 소녀들을 위한 학교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음²¹⁾
- 우리나라의 근대 특수교육의 기원을 로제타 홀이 오봉래에게 점자 지도를 시작한 해로 본다면, 이 유물은 특수교육사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들로 이 유물은 시각장애인 여성에 대한 교육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로서 가치가 충분히 있어 문화재로 등록할 필요가 있음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글학습점자교재’라는 명칭은 매우 포괄적이라 판단됨. 따라서 이 유물의 특징인 ‘로제타 홀’, ‘한글 학습’, ‘점자 교재’와 같은 의미가 모두 포함할 수 있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라 여겨짐

<○○○○○○○○○○○○○○○○>

1) 개요

- 「한글학습점자교재」는 로제타 홀(Rosetta Sherwood Hall, 1865-1951)이 1897년 뉴욕식 한글 점자를 개발하며 당시 배재학당 등에서 한글 학습서로 활용하던 「초학언문」을 점역한 교재를 일컫는 명칭임.
- 점역본인 「한글학습점자교재」의 본디 내용이 되는 「초학언문」은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마가릿 벙겔(Margaret J. Bengel, Mrs.G. H. Jones)이 1895년 저술한 한글 학습서로 배재학당 등에서 교재로 사용됨.

18) 앞의 책, 398-407.

19) Kim, Hyangsook(2015). Medical Missionary Rosetta Hall's Influence on Women's Education in Late Chosen Dynasty. *Logos Management Review*, 13(3), 57-22.

20) 이형진(2015). 로제타 셔우드 홀(Rosetta Sherwood Hall)의 선교사역이 한국 시각장애인 복지에 미친 영향 연구. *기독교문화학회 학술대회 자료집(통권32호)*,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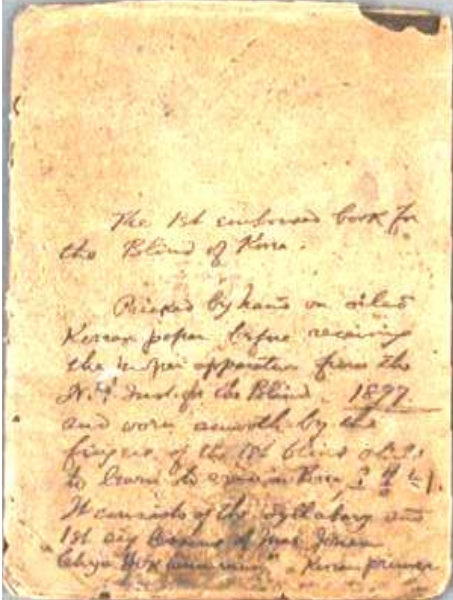

21) 앞의 논문.

- 「초학언문」은 서문이 없이 전해져 편찬 목적이나 학습의 대상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내용과 구성을 통해 처음 한글을 학습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글학습 교재임을 유추하여 알 수 있어 로제타 홀이 시각장애 학생의 첫 한글점자 학습을 위한 교재로 선택하기에 적합하다 사료됨
- 로제타 홀은 우리나라의 의료사업과 교육사업을 위해 헌신한 선교사임. 관련된 주요 업적으로는 정진여학교에 시각장애 특수학급 개설, 뉴욕식 한글 점자 개발과 사용 등의 활동을 들 수 있음. 1993년 문교부에서 발간한 특수교육백서에 따르면, 로제타 홀은 1925년까지 26년간 맹학교와 농학교의 교장직을 수행하기도 함. 그 외에 평양에 홀 기념병원, 에디스 마거리트 어린이 병원, 여자의학교(Women's Medical Institute,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 등의 의료사업도 활발히 펼침
- 1894년에서 1897년 11월까지 만 3년간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로제타 홀은 어릴 적 어머니와 함께 방문하곤 했던 뉴욕 시각장애인학교(New York Institution for the Blind)을 방문하여 양각점자로 개발된 뉴욕점자(New York Point)의 점자체제를 다시 익히며 조선의 한글에 적용할 방법을 모색함. 뉴욕점자(New York Point)는 1868년 당시 뉴욕맹학교의 교장인 웨이트(William Bell Wait)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으며, 종 2점, 횡 최고 4점으로 배열하고 자주 쓰이는 문자가 최소수의 점을 가지는 것을 특징으로 함. 로제타 홀은 1897년 한국에 다시 돌아오자, 그녀는 이 점자체제를 한글 철자와 그 음절에 맞춰 적용하여 「초학언문」을 점역하여 「한글학습점자교재」를 개발함. 이는 1926년 송암 박두성에 의해 브라유형 한글점자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시각장애인들 사이에 통용됨
- 「한글학습점자교재」개발 과정은 로제타 홀 본인의 기록과 아들 샤우드 홀(Sherwood Hall, 1893-1991)의 기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데, 그는 어머니 로제타 홀의 「한글학습점자교재」는 '뉴욕 점자'를 조선말에 맞게 고친 것으로 조선에 돌아온 1897년 그해 겨울 로제타 홀이 조선어 교재를 카드보드와 비슷하게 한지에 기름을 먹여 뻣뻣하게 만든 후 바늘로 찍으며 점자법으로 복사했음을 보고함
- 유물은 김정권(전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이 1992년 '한국특수교육 100년사의 집필을 준비하면서 미국을 방문하였다가 로제타 홀의 손녀 필립스킹을 만나서 한글학습점자교재를 기증받아 현재 대구대학교 점자출판박물관에서 보관중임

2) 주요 내용 및 특징

- 유물은 21.3cm×13.4cm(세로×가로) 크기의 기름먹인 한지에 바늘로 점을 찍어 당시에 널리 쓰이던 「초학언문」을 점역한 초고 점역본으로 단 1권이 제작된 원본임
- 유물은 1권(앞뒤 표지 이외 9쪽)으로 구성되어 있어 표지는 앞뒤를 감싼 1장으로 연결되고 내지는 9장으로 다소 두꺼운 기름먹인 한지에 점자 구멍이 나 있음. 중철과 비슷한 구조로 실로 엮어 제본됨. 2장을 접어서 실로 엮은 책형(1-, 2-9, 3-8, 4-7 5-6, 데륙(6장)은 가운데 1cm 가량 반원 모양의 박락 있음. 내지는 5장을 접어서 중철 되었고 내지 중 2장은 날장으로 떨어져 있음(3-7장). 데구(제구, 2-9장)은 종이 상단부가 1cm 짧은 모양을 보임
- 표지는 영문으로 앞표지에는 로제타 홀의 자필로 「한글학습점자교재」의 제작 방법과 제작 목적, 교육 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며 「한글학습점자교재」이 한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양각도서임을 밝힘

- 내지는 총 9면으로, 1면 데일공과 ㄱ ~ 데이공과 ㄹ, 2면: 데이공과 마 ~ 데이공과 츠, 3면 데이공과 카 ~ 데이공과 와워, 4면 데이공과 좌취 ~ 데삼공과 집, 5면 데삼공과 종 ~ 데스공과 당기, 6면: 데스공과 다리 ~ 데오공과 밥 가져오, 7면 데오공과 물 마셔라 ~ 데륙공과 이 세상에, 8면: 데륙공과 죄업논 ~ 데륙공과 글공부, 9면: 데륙공과 로 령혼을 ~ 데륙공과 데일이라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p>「한글학습 점자교재」 표지</p>	<p>「한글학습점자교재」 내지 데일공과 ㄱ ~ 데이공과 ㄹ</p>

- 원본 자료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점자 자료로 제작하려 하였으나 점자쓰기의 특성상 읽기 방향에 차이가 있어 「초학언문」이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내려 읽는 것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일어가는 형태로 점역함

	
<p>「한글학습점자교재」의 데일공과 ㄱ ~ 데이공과 ㄹ</p>	<p>배재학당의 한글 학습서 「초학언문」의 표지와 데일공과 ㄱ ~ 데이공과 ㄹ</p>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체적으로 보존상태는 양호함. 다만 제작 당시 로제타 홀이 점자판이나 점필을 구하기 전에 바늘로 찍어 제작한 점자로 정안인이 점자의 자형을 눈으로 확인하기에는 무리가 없으나 손가락으로 촉지(觸知)하여 자형을 구분하기에는 돌출면이 다소 마모된 경향이 있음
- 한지에 기름을 먹여 점자가 오랫동안 보존되도록 제작되어 표면이 거칠지 않고 균일하며 손가락을 부드럽게 움직이며 점자를 읽을 수 있는 재질을 유지하고 있음
- 매 페이지의 상단에 원본 페이지 번호가 적혀져 있으나 누구의 필체인지 확인이 어려움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대구대학교 점자출판박물관에서 습자지로 감싸고 온도와 습도 등을 조절하여 보존하고 있음. 다만 기름에 먹인 종이가 산화되는 등 지속적인 손상이 이루어 수 있는 만큼 장기적인 보존을 위한 보관 방법의 마련이 요구됨

5) 문화재 활용 관련 사항

- 대구대학교 점자출판박물관 소장 한글학급점자교재는 로제타 홀이 시각장애인에게 한글을 교육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처음 개발된 한글점자 교재로 우리나라 시각장애 학생교육의 역사와 발전에 큰 의의가 있는 중요한 유물임
- 시각장애 교육의 역사에 관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근대 특수교육의 모습과 교육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우리나라는 로제타 홀에 의해 우리 국어의 체계에 따른 처음으로 한글점자를 개발하고 사용하게 됨. 본 유물은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에 발간된 첫 한글점자 교재라 할 수 있음
- 한글점자 발전 연구에 빠져서는 안 되는 주요한 자료임
- 우리나라에 점자판과 점필이 들어오기 이전 점자교육 자료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임
- 로제타 홀의 한글점자(평양점자라고도 함)는 박두성에 의해 훈맹정음(訓盲正音, 6점자)이 1926년까지 발표된 이후에도 평양을 중심으로 시각장애인들 사이에 통용됨

<p>가 가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ㄱ 나 나 너 너 노 뇨 누 뉴 느 니 ㄴ 다 다 더 더 도 도 두 듀 드 디 ㄷ 라 라 리 러 로 료 루 류 르 리 ㄹ</p>	<p>가 가 거 겨 고 교 구 규 그 기 ㄱ 나 나 너 너 노 뇨 누 뉴 느 니 ㄴ 다 다 더 더 도 도 두 듀 드 디 ㄷ 라 라 리 러 로 료 루 류 르 리 ㄹ</p>
평양 4점자 (로제타 홀)	6점자 (박두성)

7) 등록가치의견

- ‘한글학습점자교재’는 로제타 홀이 1897년 뉴욕식 한글 점자를 개발하며 당시 배재학당 등에서 한글 학습서로 활용하던 「초학언문」을 기름먹인 한지에 바늘구멍을 내어 점역한 단 1권뿐인 교재로, 한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양각점자도서임. 더욱이, 그 제작 방법과 제작 목적, 교육 대상 등에 대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점자판과 점필 등 점자 쓰기 도구가 우리나라에 보급되기 이전의 점자교육 모습을 증명하는 유물로 그 가치가 높음. 최근 훈맹정음의 문화재 등재와 더불어 우리나라 점자 발전사의 첫걸음이 되는 ‘한글학습점자교재’에 대한 문화재 등록이 요구됨
- 우리나라에 서구적인 근대 특수교육의 처음 시작은 1894년 로제타 홀이 오봉래(본명: 오복너)라는 시각장애인 여학생에게 시작한 점자지도에 기원을 둬. 한국특수교육사에서 로제타 홀이 한국 최초의 근대 특수교육을 시작한 선구자라는 사실에 관한 이견을 찾아보기 어려움. 어릴 적부터 시각장애 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로제타 홀과 오봉래와의 만남은 한국에서 근대 특수교육을 구체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됨
- 로제타 홀의 「한글학습점자교재」의 문화재적 가치는 우리나라 근대 특수교육의 장면을 설명해 주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으로 로제타 홀은 오봉래를 위한 「한글학습점자교재」의 개발과 제작에 그치지 않고 오봉래에게 직접 한글점자를 교육하며 점자학습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음에 그 의의가 더욱 높음. 로제타 홀은 일기에 “봉래를 가르치기 위해 기름종이에 바늘로 점을 찍어 점자를 개발했다. 봉래는 열심히 공부하는데다가 총명해서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보고하는가 하면 오봉래가 준비한 교재를 읽을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글을 쓸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게 되었음을 보고하기도 하며 당시 교육현상을 전달하는 교육기록을 함께 남김

8) 기 타(등록 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시 문화재의 명칭은 ‘로제타 홀 한글학습점자교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로제타 홀이 개발한 한글점자를 ‘평양점자’, ‘평양식점자’ 등의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는 근간이 되는 뉴욕점자의 이름에 평양의 지명만을 바꾸어 붙인 것으로 우리 한글의 우수한 구성체계를 담고 있는 로제타 홀의 한글점자를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있음. 또한 이후 로제타 홀이 개발한 뉴욕식 4점 한글점자 기도문과 성경 등과의 구분과 그 특수교육사적 의의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로제타 홀 한글학습점자교재’라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됨

3. 「옛 충남경찰서 체육관(상무관)」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대전광역시 중구 소재 「옛 충남경찰서 체육관(상무관)」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옛 충남경찰서 체육관(상무관)」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21.7.5.)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21.11.12.)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대전광역시장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옛 충남경찰서 체육관(상무관)
 - 소재지 : 대전 중구 보문로 287(선화동)
 - 소유자 : 경찰청
 - 수량 : 1동
 - 건립시기 : 1963년
 - 구조 및 규모 : 조적조, 목조트러스 지붕/ 1층 522.31㎡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21.7.5.)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대전광역시 → 문화재청)
 - ('21.11.12.)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1963년 주한 미8군의 지원을 받아 '충청남도 경찰학교'로 건립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세워진 충남 무덕전 건물 터에 남아 있던 기단을 활용하여 건축하는 등 한국전쟁 이후의 시대적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독특한 건축적 내력이 있는 점, 또한 당시 지역사회에서 근대적 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의 등록 검토가 필요함.
- 다만, 등록할 경우 최초 건립 당시의 명칭 '구 충청남도 경찰학교'로 명칭 부여 검토 필요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21.11.12.)

- 광복 후에 지어진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기관 부속시설로서 건립 당시의 건축기술과 상황을 담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타운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사적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됨.
- 현 상태를 유지하되 내진구조 보강을 위하여 설치된 철골 구조물은 기존 유구의 건축적 질서를 깨고 있으므로 향후에 건축 질서에 합치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활용계획 수립의 기본전제로서 외벽의 창 형태 유지와 이를 통한 자연채광의 원칙, 원형의 유구 보존과 노출 등에 특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임.

○ 문화재전문위원 ○○○('21.11.12.)

- 옛 충남경찰서 체육관은 충남지방경찰청의 부속 건축물로서 60여년 이상 사용되면서 지역에서의 기억과 상징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음. 일제강점기에 자리 잡은 충남도청과 주변 일대가 갖는 지역의 행정적, 사회적 중심으로서의 장소적 가치를 공유하는 건축물임.
- 기존 무덕관 건축물의 기단부 위에 지어진 독특한 유례와 함께 1960년대 건축물로서 개방적인 공간 구성과 주출입구 부분을 포함한 입면에서의 조형적 처리, 목조 트러스 구조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등록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의 구조체계 및 공간 구성, 외부 마감 재료 및 세부 표현 등 전체적인 외관의 보존이 필요하며 옛 충남도청과 함께 주변 영역의 경관 보존도 필요함.

○ 문화재전문위원 ○○○('21.11.12.)

- 지역사회에서 과거 '대전 충무체육관'이 신축되기 이전까지 실내 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상무관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고, 건축사적 측면에서도 1960년대 모더니즘 건축으로서의 시대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어 근대문화유산으로 의미가 있음.
- 또한, 일제강점기 건축된 충남 무덕전 건물 기단을 이용하였다는 독특한 건축 내력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등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가 인정된다고 할 수 있음.

사.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명칭은 「대전 구 충청남도 경찰청 상무관」으로 추진

○ 출석 12명 / 조건부가결 12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옛 충남경찰서 체육관(상무관) (구) 충청남도 경찰학교
2. 용 도 : (현) - (원) 체육시설
3. 소재지 :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87(선화동)
4. 소유자 : 경찰청
5. 대상물 개요
 - 구조 : 조적조, 목조트러스지붕
 - 제작년도 : 1963년
 - 수량 및 면적 : 1동, 면적 522.31㎡
 - 층수(높이) : 지상 1층
6. 조사자 의견('21.11.12)

<문화재위원 ○○○>

1) 개요

- 일제강점기에 공주로부터 충청도청이 대전으로 이전해 오면서 도청사, 경찰서, 시험장, 무기고, 우체국 등이 건립되었고 광복 후에도 여러 채의 건물이 세워져 행정기관의 건물군이 조성되어 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일본 전통식 건축으로 무덕전(武德殿)이 건립돼 있었는데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목조였던 건물 본체는 파괴되고 그 터는 오랫동안 기단부만 남은 채로 1960년대까지 유지되었다.
- 본 신청 유구는 1963년에 파괴 후 방치돼 있던 무덕전의 기단부를 활용하여 그 위에 현재의 상무관 구조물을 올린 것이다. 건물의 주요 구조는 벽돌 조적조이며 지붕은 목조 트러스 위에 기와를 이었다. (조적조 벽돌은 시멘트벽돌로 추정됨) 네 군데에 있는 출입구 포지와 캐노피의 구조, 외벽 개구부에 설치된 인방(보)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 구 충남도청 본관은 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대전광역시의 시설로 보존·활용 중이다. 충남도청이 2013년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고 옛 도청 영역을 대전광역시에서 활용하면서 재정비를 시행하면서 경내에 여러 건물이 해체되기도 하고 리모델링되기도 하였다.
- 이번에 문화재 등록 신청한 본 유구는 구 충남도청 구내에 남아 있는 근대건축 중에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터의 역사를 잘 간직하고 있다.
- 다중 이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던 중, 내진을 위한 구조보강이 이루어지면서 철골 기둥과 보를 설치하였다.
- 바닥은, 준공 당시의 상황을 확정할 자료가 없어 파악할 수가 없으나 최근 내진 보강을 위해 철골 기둥 기초공사 때 해체한 바닥 사진으로 미루어 보면 잡석 지정 위에 무근 슬래브를 바닥 전면에서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향후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본 건물은, 1960년대 건축된 건물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 우선, 벽돌 조적구조로 지으면서도 외벽엔 큰 창을 두어 개방성을 가지며 체육관으로서 충분한 자연채광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 건물의 본체는 모더니즘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폭 20m, 길이 34m에 이르는 지붕을, 실내기둥 없이 철근콘크리트로 덮지 못하고 재래식의 목조 트러스 구조로 씌울 수밖에 없었던 건립 당시의 재료 수급 및 기술적 한계가 그대로 반영되었다.
- 건물본체의 외곽 하부에는 폭 1.5m의 테크가 설치돼 있는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추정되며 일제강점기에 세워졌던 무덕관 하부시설의 잔존 부분일 가능성도 있다.
- 외벽의 외부는 조적조 벽돌 위/모르타르 마감/페인트 (포치 부분은 스티코일 가능성 있음)이며 내부도 모르타르 마감 위 페인트이다.
- 벽의 창호 외부 아랫부분에는 갈색 모자이크 타일을 건물 전체적으로 둘러, 수평적인 띠가 건물을 감싸는 듯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전반적으로 보존상태는 좋은 편으로 원형을 잘 유지하고 있다.
- 실내의 천장에는 원래, 바둑판 모양의 목재 천정이 설치돼 있었으나 내진보강 공사 때 천정을 제거하여 트러스 구조가 노출되어 있으며 개판과 기와는 새 재료로 교체되었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위에 적은 것과 같이 구 충남도청사 일곽은 일제강점기와 광복 후, 근현대기를 거치며 조성된 행정타운으로서 면모를 지니고 있으며 구 충남도청사는 2002년에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어 지금은 대전 근현대전시관으로 활용하고 있다.
- 구 충남도청 경내의 시설물들을 활용하여 시민문화공간, 시민공유공간 등을 설치하여 시민 소통공간을 마련할 계획을 세우고 실행공사를 하고 있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대전시에서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시민공유 공간 형태로 조성

- 시민이 사용의 주체가 되는 오픈형 시민의 홀 조성
- 전시·공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리모델링)
- (리모델링 컨셉) 오픈형·가변형, 열린 문화공간
 - ※ 고적적 구조물 설치 지양하며 최대한 원형 유지로 문화재 가치 보존

② 시민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

- (저변확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 상시 운영
- (열린문화) 전문영역의 문화예술 서비스 이용자(시민)가 아닌,
도전과 창의가 발산되는 협업예술활동으로서의 역할수행
 - * 드림씨클, 컨택댄스, 마임, 힐링춤워크샵 등

○ (플렉서블스페이스) 문화블랙홀이 아닌 시민자율놀이터(난장) 역할

③ 사회혁신 복합플랫폼 ‘소통협력공간’ 과 연결

○ (공간적 연결) 근현대건물과 소통협력공간 소개 투어 프로그램

○ (인적 네트워크) 혁신활동가와 시민의 자연스러운 쌍방향 교류(컴터의 공유)로 네트워크 문화 연결
→ 사회혁신 복합플랫폼의 저변 확대

○ (자원 네트워크) 자원의 공유를 통한 프로그램별 상호 연결 운영

○ 체육관으로 사용되었던 원래의 용도와 내부 공간을 잘 활용하여 건물의 특성과 어울리는 기능을 잘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국가등록문화재인 구 충남도청사를 비롯하여 행정타운 내의 시설들을 시민 활용 공간으로 활용하면서 근현대 유구를 보존해 온 경험을 토대로, 보다 정교하게 활용계획을 보완한다면 본 신청 건물이 가지고 있는 건축사적 의미와 가치를 잘 담은 내용들을 담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실내에 기둥 없이 지붕을 설치하여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건축으로 체육관과 강당을 같은 유형의 건축으로 분류한다면, 구 대구사범학교 본관과 강당, 강경 중앙초등학교 강당, 구 소록도 갯생원 사무본관과 강당, 전주 신흥고 강당, 고창 고등보통학교 강당, 홍성 고등학교 강당, 청주 공립보통학교 강당, 청주 대성여자 중학교 강당, 인천 제물포 고교 강당, 대구 동인초등학교 강당, 광주 서석초등학교 체육관, 이화여대 체육관, 의릉 중앙정보부 강당 등이 이에 속한다.
- 이 중, 중앙정보부 강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광복 후에 만들어진 체육시설로서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7) 등록가치의견

- 이번의 등록신청 유구는 광복 후에 지어진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기관 부속시설로서 건립 당시의 건축기술과 상황을 담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행정타운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역사적 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 현 상태를 유지하되 내진구조 보강을 위하여 설치된 철골 구조물은 기존 유구의 건축적 질서를 깨고 있으므로 향후에 건축질서에 합치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 아울러 활용계획 수립의 기본전제로서 외벽의 창 형태 유지와 이를 통한 자연채광의 원칙, 원형의 유구 보존과 노출 등에 특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대전 구 충남경찰청 상무관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옛 충남경찰서 체육관이 지어진 위치는 일제강점기 충남도청이 대전광역시의 중심 가로인 중앙로를 마주하며 건립된 이후 그 북쪽 방향으로 1930년대 일본 목조 건축 양식의 무덕관이 지어졌던 자리임.

- 무덕관 건축물이 소실된 이후 남아있던 기초와 기단부를 활용하여 1963년 그 위쪽에 충남지방경찰청의 부속 건축물로서 현재의 건축물을 신축함.
- 경찰학교 등으로 사용되었고 2013년 충남지방경찰청이 이전하기 전까지 체육시설로서 사용되면서 대전 최초의 실내체육관으로 사용됨.

2) 건축양식 및 주요 특징

- 일제강점기 무덕관 건축물의 계단과 기단부를 활용하여 조적조 벽체 위에 철근콘크리트 테두리보를 두르고 목조 트러스 구조의 지붕을 형성함.
- 동쪽 방향으로 주출입구를 두었고 내부는 기둥이 없는 넓은 단일 공간으로 구성함. 개구부 없이 벽으로 처리된 북쪽면을 제외한 3면에는 넓은 개구부를 두어 개방적으로 구성함. 동쪽 주출입구의 좌측에 부출입구를 두었고 남쪽면과 서쪽면의 중앙에도 부출입구를 설치함.
- 주출입구는 무덕관 건축물 계단 중간 부분 좌우에 기둥을 세우고 위쪽에 콘크리트보와 슬래브로 구성된 포치를 설치함. 정면은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 구성으로 주출입구의 좌우 측면은 석재 타일로 마감하고 기단과 접하는 건축물 하부는 타일로 띠를 둘러 마감함.
- 지붕은 목조트러스 구조의 모임지붕 형태로 시멘트 기와로 마감하였고, 정면과 배면 쪽에 각 2개소의 도머창을 설치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창호 등이 변형되었고, 최근 보수 과정에서 지붕 마감 재료 등이 교체되었음.
- 건축물 내부에는 구조보강을 위한 철골구조의 프레임이 설치됨.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구 충남도청을 포함하여 지역의 근대기 역사 경관을 보존하려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 보존관리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건축물의 원형을 보존하면서 시민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개방적인 시설로서 활용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소유주 및 관리자가 보존 및 활용에 대한 충분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기존 국가 등록문화재 중 체육시설의 사례는 많지 않으나, 개방된 단일 공간으로 구성되어 체육 활동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한 학교 강당과 같은 사례는 다수 확인할 수 있음. 기 등록된 유사한 기능의 사례와 비교할 때 옛 충남경찰서 체육관은 장소와 지역에서의 가치와 함께 1960년대 건축물로서의 조형적, 재료적, 구조적 특성 등의 측면에서 등록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옛 충남경찰서 체육관은 충남지방경찰청의 부속 건축물로서 60여년 이상 사용되면서 지역에서의 기억과 상징성의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음.

- 일제강점기에 자리 잡은 충남도청과 주변 일대가 갖는 지역의 행정적, 사회적 중심으로서의 장소적 가치를 공유하는 건축물임.
- 기존 무덕관 건축물의 기단부 위에 지어진 독특한 유례와 함께 1960년대 건축물로서 개방적인 공간 구성과 주출입구 부분을 포함한 입면에서의 조형적 처리, 목조 트러스 구조 등이 잘 보존되어 있어 등록가치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 건축물의 구조체계 및 공간 구성, 외부 마감 재료 및 세부 표현 등 전체적인 외관의 보존이 필요하며 옛 충남도청과 함께 주변 영역의 경관 보존도 필요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이 건축물을 지칭하였던 ‘상무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등록시 문화재 명칭을 ‘구 충남경찰서 상무관’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이번 등록 신청된 ‘옛 충청남도경찰청 체육관(상무관)(이하, 상무관으로 통칭)’은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에 소재하였던 옛 충남지방경찰청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충남지방경찰청이 충청남도 내포 신도시로 이전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용되어 왔음.
- 오늘날 충남지방경찰청은 1945년 ‘충청남도 경찰부’로 발족된 후, 1946년 제3관구 경찰청(1946년)을 거쳐 1948년 도지사 산하 충청남도 경찰국으로 개칭되었으며, 1962년 충남경찰학교 설치가 결정되었고, 1974년에는 경찰국 단독청사가 준공되었음(동 청사 건물은 현존 구 충청남도경찰청 본관으로 보임).
- 즉, 상무관은 1962년 충청남도경찰학교 설치 결정에 따라 그 이듬해인 1963년에 신축된 충청남도경찰학교 건물로서 당시 주한 미8군의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체육시설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임.
- 또한, 본래 상무관 자리는 일제강점기 군인과 경찰들이 무술을 수련하는 ‘충남(忠南) 무덕전(武德殿)’이 있었던 곳으로 한국전쟁 중 건물이 훼손된 후(1933년 12월 28일자 매일신보에는 ‘충남 무덕전 준공식’이라는 기사와 함께 내부 사진이 실려 있음) 그 자리에 상무관이 건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지역사회에서는 상무관이 과거 ‘대전 충무체육관’이 신축되기 이전까지 실내 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등 그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건축적으로도 1960년대 모더니즘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등 지역의 향토사 및 건축사적 측면에서 근대문화유산으로 의미가 있는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문화재청에서는 2016년 근현대 체육시설 분야 목록화조사 내용을 토대로 대전광역시 등 관련단체에 등록 검토 대상으로서 통보한 바 있음.
- 하지만, 지난 2020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옛 충남경찰청 부지 일대에 대전중부경찰서와 대전세무서, 대전지방교정청 등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정부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상무관이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지역사회 및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존치키로 결정된 상태임.
- 현재, 대전광역시에서는 소유자인 경찰청(대전중부경찰서장)으로부터 동 건물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아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시민의 별채’라는 소위, 개방형 공간(시민 홀)을 조성하여 활용하고자 관련계획의 수립과 함께 추진 중에 있음.

- 즉, 2013년 충남지방경찰청이 내포 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줄곧 방치됨에 따라 부분적으로 노후화 등이 진행되어 2020.8.~2021.6.까지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구조보강 및 지붕 단열·방수 공사를 일부 진행한 상태임.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상무관이 위치한 ‘구 충남지방경찰청’ 부지에 인접하여 ‘구 충남도청사’가 자리 잡고 있고 그 영역 내에는 국가등록문화재인 ‘구 충남도청 본관’ 건물을 비롯하여 ‘구 충남도청 선거관리위원회’ 및 ‘구 충남도청 무기고’, ‘구 충남도청 우체국’ 등 여러 동의 근현대문화유산이 현존하고 있음.
- 본래 상무관 자리는 일제강점기에 건축된 ‘충남 무덕전’이 있었으나, 한국전쟁 중 건물이 소실되어 그 흔적으로서 기단만 남아 있었던 곳에 현재의 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다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음).
- ‘충남 무덕전’에 대해서는 여러 기록 등을 통해서 대략적인 건축물의 형태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를 근거로 하면 기단 모습이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다만, 현재로서는 기단이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체로 이루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당시 기단의 잔존 상태와 상무관 공사 과정 등 건축적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상태임.
- 또한, 사진 속에 담겨진 무덕전의 모습에서 일본 전통목조건축의 형태를 찾아볼 수는 있으나, 실제 목구조로 지어진 것인지 아니면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였던 소위, 화풍건축에서와 같이 번안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음.
- 기단은 지면에서 일정 간격을 띄워 설치되었고 전후좌우 네 면에 계단을 달아내었는데, 기단 상면에 연결된 계단 소맷돌의 결구방식으로 볼 때 계단 역시도 무덕전의 유구로 추정됨(실제로 과거 기록 사진 등을 통해서 현재 위치에 유사한 형태의 계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장방형 평면으로 조적조 벽체 위에 철근콘크리트 테두리보를 설치하고 상부에는 목재트러스를 이용하여 우진각지붕을 구성하였으며 지붕 전·후면에는 2곳의 도머창을 설치하였음.
- 내부는 별도의 기둥과 칸막이벽 없이 하나의 통칸으로 구획되었으나, 최근 구조보강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H형강의 보조기둥과 보(beam)를 다수 설치하였으며, 트러스와 개관 등의 일부 목부재와 함께 지붕 기와(건축물대장상에는 1974년 당시 도단급 즉, 합석 지붕으로 표기되어 있어 원형에 고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신재로 교체하였음. 또한, 천정에 가설되었던 반자가 모두 제거된 상태임.
- 정면 중앙부에 현관을 두고 좌측면과 배면에 각 1개소씩의 부출입구를 마련하였으며, 현관과 부출입구 상부에는 각각 포치와 캐노피를 설치하였음. 특이한 것은 현관 상부의 포치를 지지하는 기둥이 계단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아마도 잔존하였던 기단과 계단 위에 포치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됨.
- 우측면을 제외한 다른 세 면에는 벽면 전체에 창호를 설치하여 내부 공간의 개방감을 더하고 있으며, 창호의 패턴과 형태로 보아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바닥은 신축 당시의 마감재(인조석 물갈기)가 그대로 남아 있으며, 벽체는 시멘트 몰탈을 바르고 그 위에 페인트로 마감하였음.

- 현재 상무관 내에 보관 중인 현판(‘尙武館’) 뒤편에 새겨진 기록에 따르면(‘西紀一九七五年六月一八日 尙武館改修懸板 忠南警察局長金許○…’), 1975년 6월 18일에 개수(改修)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건물의 내력 등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건물의 구조와 외부 형태는 비교적 원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되나,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내부 공간에서 보강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고 진정성이 오롯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적절한 계획 수립 후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또한, 한동안 방치되어 노후화가 전체적으로 진행된 만큼 철저한 원형 고증을 거쳐 보수공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지난 2020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옛 충남경찰청 부지 일대에 대전중부경찰서와 대전세무서, 대전지방교정청 등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정부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함에 따라 상무관이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지역사회 및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보존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되어 존치키로 결정된 상태임.
- 향후, 대전광역시가 소유자인 경찰청으로부터 무상사용허가를 득하여 시민공유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대전광역시는 상무관을 공공 목적의 활용을 위해 ‘시민공유공간’으로 조성하고자 관련계획을 수립 및 추진 중에 있고,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 유지를 위한 보존, 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공공성이 담보된 시민공유공간으로 조성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관련계획이 마련된 만큼 활용과정에서 문화유산적 가치가 훼손되는 등 보존,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다만, 향후 활용을 위한 보강 및 보수공사 등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고증과 함께 관련계획 수립되어야 할 것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이번 등록 신청된 상무관은 지난 2016년 문화재청에서 실시한 체육시설 분야 문화재 등록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목록화 조사 과정에서 등록 검토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중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체육관 A동’ 및 ‘광주광역시 관덕정’은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음.

7) 등록가치 의견

- 오늘날 지역사회에서는 상무관이 과거 '대전 충무체육관'이 신축되기 이전까지 실내 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그 위상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건축사적 측면에서도 1960년대 모더니즘의 특성이 반영되어 있는 등 근대문화유산으로 의미가 있음.
- 또한, 일제강점기 건축된 충남 무덕전 건물 기단을 이용하였다는 독특한 건축 내력을 통해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간접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등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가 인정됨.

8) 기타

- 등록문화재 등록 명칭 부여 지침에 따라 「대전 구 충청남도 경찰학교」, 「대전 구 충남경찰청 체육관(상무관)」 등이 적당할 것으로 보임.

4. 「무유현」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검토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 「무유현」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가치 여부를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무유현」의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18.3.13.)에 따라 관계 전문가 현지조사('18.11.20.)를 실시하고,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문화재명칭(안) : 무유현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59번지 3(선린동 25-2)
 - 소유자 : ○○○
 - 수량 : 1동
 - 건립시기 : 1939년(건축물대장)
 - 구조 및 규모 : 조적조, 목조트러스/ 지상2층 317.36㎡
- (3) 검토사항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 (4) 추진경과
 - ('18.3.16.) : 국가등록문화재 등록 신청(인천광역시 → 문화재청)
 - ('18.11.20.) : 문화재 등록 검토 조사 실시
 - 건물 연혁 및 이력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할수 있는 자료 요청
 - ('21.7.15.) : 추가 자료 제출

라. 검토의견(근대문화재과)

- 내·외부 형태가 본래 원형에서 많은 변형이 이루어졌으며, 건축이력 및 건축적 특성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또한, 역사적 의미가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국가등록문화재로의 등록여부 검토가 필요함.

마. 등록조사보고서 종합의견(요약) : 상세내용 <붙임> 참조

○ 문화재위원 ○○○('18.11.20.)

- 조사대상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39년 신축되었으나 1920년대 사진에서도 존재가 확인되고 본래 주택으로 건축되었다고 전해지나 그와 관련된 구체적 고증과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신축시기와 원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
- 1995년 이후 성당 교육관, 2014년 이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활용되며 외부 형태를 구성하는 외벽, 지붕, 창호 등이 변형되고 내부도 본래 원형에서 많은 변형이 발생된 상태.
- 또한 주목할 만한 역사적 의미와 건축적 특성도 미흡하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 지역의 많은 근대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시·도등록문화재로 보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 문화재전문위원 ○○○('18.11.20.)

- 조사 시점에서는 국가 근대문화재로 등록하기에 부적절 함
- 건물에 대한 인문적, 건축적 상세한 조사 후 판단할 수 있으며, 개변된 부분들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활용용도(구조보강, 설비, 전기, 배수, 난방 등)에 맞게 추가 공사를 실시한 후 판단 할 수 있음.

○ 문화재전문위원 ○○○('18.11.20.)

- 원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게다가 건축적 내력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 등을 확인하는데 적지 않은 제약과 한계가 있음.
- 또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져 물리적인 변형이 다수 발생된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는 다소 미미하다고 판단됨.

바. 의결사항

○ 부결

- 내·외부 형태가 원형에서 많이 변형되어 등록가치 미흡

○ 출석 12명 / 부결 12명

<붙임>

문화재 등록조사보고서

1. 명 칭 : (현) 무유현 (구) -
2. 용 도 : (현) 근린생활시설(2014~현재) (원) 성당 교육관(1996~2014)
3.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차이나타운로 59번지 3(선린동 25-2)
4. 소유자 : ○○○
5. 대상물 개요
 - 건축구조 : 조적조, 목조트러스
 - 준공일 : 1939년(건축물대장)
 - 수량 및 면적 : 1동, 지상2층(158.68㎡)
6. 조사자 의견('18.11.20)

<문화재위원 ○○○>

1) 개요

- 인천 개항 당시 청국 조계지로 설정된 후 중국 관련 각종 건축물이 집중적으로 건축되며 차이나타운과 중국인 거리를 형성하였고 현재도 당시 흔적과 근대문화유산이 다수 남아 있는 인천 중구 선린동 지역에 위치.
-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39년 신축된 것으로 확인되지만 1920년대 당시 중국인 거리를 촬영한 사진에서도 건물의 존재가 확인되므로, 그 이전에 이미 신축된 것으로도 추정 가능.
- 조사대상 건축물 도로 건너편에 차이나타운의 중국 화교를 위해 1960년 설립된 해안성당이 1995년 매입한 후 성당 교육관으로 활용하였으며, 2014년 개인에게 매각된 후 소매점, 비디오물감상실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활용.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건축물대장에 1939년 신축, 2층, 연와조, 아연즙(亞鉛葺)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본래는 적벽돌 조적조 벽체, 함석마감 경사지붕, 목조트러스 지붕구조체, 목조마루 바닥이 기본적 건축형식.
- 건축물대장에서 연와조로 확인되고 1920년대 사진에서도 정면 외벽에서 벽돌 형태 마감이 확인되지만, 현재 정면 외벽은 인조석 미장 마감으로 후에 본래 적벽돌 외벽에 덧붙여진 것으로 추정.
- 중국인 거리에 면한 정면 입면은 돌출기둥, 코니스, 아치 등에 의해 벽면을 장식하고 주출입구를 중심으로 대칭형 입면을 구성하였으며, 주출입구는 양측에 원형기둥을 세우고 전면에는 반원형 계단을 설치.

- 내부는 1, 2층 모두 내부에 칸막이벽이 없이 원형 목재기둥에 의해 지지되며 통간(通間)의 내부공간을 형성하고 있으며, 2층 후면 내벽은 본래의 벽으로 추정되는 적벽돌 조적벽 일부가 현존.
- 인천광역시 근대문화유산목록화조사보고서(2004년) 등 일부 조사보고서에서는 본래 중국인 주택이었다가 후에 해안성당 성당 교육관으로 사용되었다고 기록하였으며, 현재는 1, 2층 모두 내부공간에서 주택의 공간적, 구조적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상태.
- 조사대상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은 근대기 당시 인천항과 연계되어 외교, 무역, 상업 활동이 매우 활발하였던 중국인 거리이었으므로, 영국인을 위한 단순 주거용 주택보다는 점포주택 또는 점포이었을 것으로 추정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본래 중국인 주택으로 건축되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지만 건축원형에 대한 구체적 고증이나 흔적이 확인되지는 않는 상태이며, 그동안 1995년 성당 교육관, 2014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변경되며 내외부에서 많은 변형이 발생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 외부에서 외벽은 본래 적벽돌 마감에서 현재 인조석 미장 마감으로, 지붕은 본래 함석 마감에서 현재 경량 샌드위치 판넬 마감으로, 창문은 본래 목재 오르내리창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창으로 각각 변형된 상태.
- 내부에서는 목조 지붕트러스와 2층 목조 바닥, 내벽 마감은 근린생활시설 활용 당시 대부분 부재가 신재로 교체되고 원형과 다른 형식으로 개보수되었으며, 현재 건물 내외부는 크게 훼손되거나 노후화된 부분이 없이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상태가 양호.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조사대상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은 인천 개항지이자 조계지로 중국 관련 유적뿐만 아니라 근대기의 유적과 흔적이 다수 남아있고 그중 일부는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로 보존되고 있음.
- 국내 대표적인 개항지이자 근대문화유산 집적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변에 위치한 다수의 근대문화유산과 연계하여 함께 보존,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 소유주는 문화재 등록 후 보수, 복원을 거쳐 미술관, 카페 등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이지 못하고 문화재 활용계획으로서는 공공성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됨.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본래의 용도가 불확실하고 건물 내외부에서 원형과 다르게 변형된 흔적이 다수 확인되므로, 기등록된 동일유형의 국가등록문화재와 가치를 비교할 수 없는 상태로 판단됨.

7) 등록가치의견

- 조사대상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39년 신축되었으나 1920년대 사진에서도 존재가 확인되고 본래 주택으로 건축되었다고 전해지나 그와 관련된 구체적 고증과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등 신축시기와 원형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

- 1995년 이후 상당 교육관, 2014년 이후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활용되며 외부 형태를 구성하는 외벽, 지붕, 창호 등이 변형되고 내부도 본래 원형에서 많은 변형이 발생된 상태.
- 또한 주목할 만한 역사적 의미와 건축적 특성도 미흡하므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가치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며, 주변 지역의 많은 근대문화유산과 연계하여 시도등록문화재로 보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8) 기 타(등록시 문화재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등록 시 명칭은 인천 중구 중국인 점포 또는 중국인 점포주택 또는 중국인 주택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이 건축물의 인천시 중구 일명 차이나타운에 위치하며 해안성당과 마주하고 있다.
- 외부는 전면을 제외하고는 좌우면, 창호 등이 거의 개변되었다.
- 지붕재 역시 원형이 아닌 굵은 골합석 샌드위치 패널로 개변되었다.
- 현 소유자는 100년 된 건축물이라고 하나 일반건축물대장(갑)에는 1939년(신구 작성(신축)으로 기록되어 있다.

2) 건축양식 및 주요 특징

- 문화재신청서에는 석조건축물로 기록하고 있으나 2층 내벽은 붉은 벽돌 쌓기로 되어 있다. 1층의 주출입구와 창호창틀, 벽체 하단은 석재를 사용하였으나 전체로 석조건축으로 보기에 더 깊은 조사가 필요하다.
- 지붕구조 및 2층 바닥은 목조로 중목구조이다.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1939년 이래 건축물의 변화는 1990년대 이후 기록되었으며 1996년 5월 6일자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되었다가 2014년 12월 31일자로 소매점(제1종근린생활시설)으로 용도변경되었다.
- 노후상태는 현저하지 않으나 내외부 개변은 작지 않아 보인다.
- 전면 및 측면 외벽은 돌붙이기로 판단되며 이는 후세에 붙인 것으로 판단된다.
- 출입구 및 창틀도 원형이라고 보기에 는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출입구 상부 반원형 내부는 창건 당시에 유리가 끼웠을 가능성이 있다.
- 지붕 천장 내부 마감재(일부)와 2층 바닥은 후에 개변된 것으로 판단된다.
- 2층의 창호(유리창)도 개변된 것으로 판단된다.
- 지붕 처마 밑 꺾벽돌도 후세에 개변된 것으로 판단된다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환경

- 주변은 근대적 건축물이 산재하는 지역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이다.
- 건물에 대한 내력(연혁)이 불비하다.
- 건물에 대한 인문적, 건축적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소유자 측의 활용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다
- 카페로 활용계획을 말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카페로 활용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있다.
- 물이나 불을 사용하지 않는 업종, 기능이 바람직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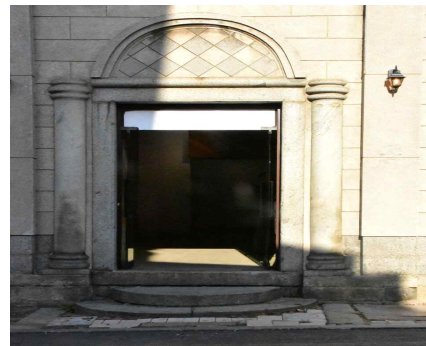
6) 등록가치의견(특히 보존해야 될 부분 명기)

- 건물에 대한 인문적, 건축적 상세한 조사 후 판단할 수 있다.
- 조사 시점에서는 국가 근대문화재로 등록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개변된 부분들을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고 활용용도(구조보강, 설비, 전기, 배수, 난방 등)에 맞게 추가 공사를 실시한 후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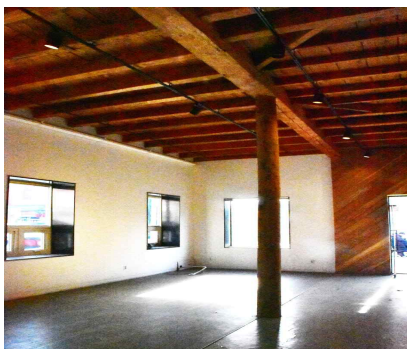
현장조사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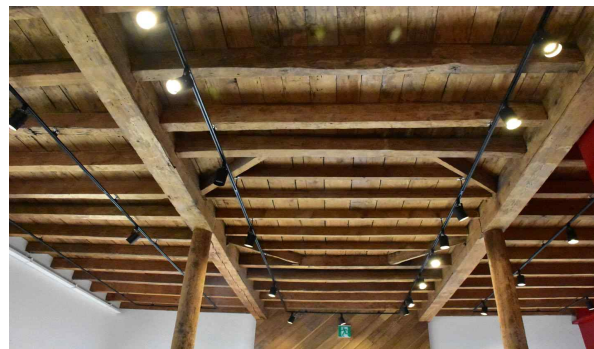
전면



주출입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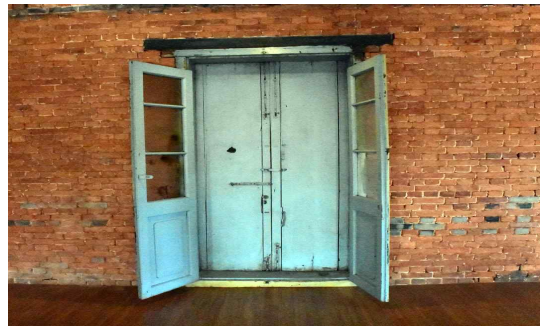
1층 실내 벽면 및 천장



1층 천장



2층 천장



2층 벽면

<문화재전문위원 ○○○>

1) 개요

- 동 건물은 오늘날 인천광역시 중구 선린동 차이나타운 지역에 위치한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따르면, 1939년에 조적조로 신축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최초 용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음.
- 그 후, 1959년 한 차례의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1995년에는 인천교구 천주교회 유지재단에서 매입함과 동시에 용도를 변경하여 ‘해안 천주교회 교육관’으로 사용해 왔음. 2014년에 또 한 차례의 소유권 이전과 함께 근린생활시설(비디오물 감상실)로 활용되었으며, 2016년에 현소유주가 건물을 매입한 후 카페시설로 운영 중에 있음.
- 동 건물이 위치한 차이나타운은 오늘날 청일조계지 경계계단 좌측편으로 과거 개항 당시 청국조계지로서 현재에도 다수의 중국풍 건축물이 남아 있음.

2) 건축 양식 및 주요 특징

- 화강석 기단 위에 벽돌(연와조)을 쌓아 올린 2층 건물로 11.31m(정면)×14.03m(측면) 규모의 장방형 평면으로 지붕구조는 목조트러스로 짜올렸으며 그 위에 개관을 깔고 슬레이트 골합석을 씌워 우진각 지붕으로 구성하였음.
- 정면 중앙부에 위치한 출입문을 통해 실내 진입이 이루어지며 그 반대편 안쪽으로 나무계단을 두어 2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음. 현재 1층과 2층 모두 하나의 통칸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본래 원형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는 알 수 없음. 2층 바닥에는 장마루를 깔았으며 1층 천정에 마루 장선이 그대로 노출되어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음.
- 출입문 좌·우측에는 원주(圓柱) 형태의 붙임 기둥을 설치하였으며 상부에는 마름모 꼴로 장식된 반원형의 아치를 두었고 기둥 상·하부에는 주두와 초석을 형상화 하는 등 정면성을 강조하였음.
- 지붕 처마 아래에는 텐털 장식으로 처리 하였고 1층과 2층 사이에는 네 면에 모두 수평띠를 둘러 층을 구분하였으며, 정면 파사드에는 수직방향으로 버트레스를 설치 하여 입면을 균등하게 분할하였음.
- 배면쪽 내벽에는 본래의 것으로 보이는 연와 벽돌이 노출되어 있으나 나머지 벽체는 모두 마감재를 새로 덧대었으며, 외벽의 경우 정면 파사드는 인조석 물씻기로 마감하였는데 이것이 본래 원형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음.

- 창호의 모습과 형태는 정면과 우측면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창호의 상·하부에는 창대석과 인방석이 남아 있으나 창틀은 현대식 샷시로 교체되었음. 다만, 정면 창호의 경우 설주에 철물 흔적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 본래는 덧문이 달려 있었을 것으로 추정됨.

3) 원형보존·변형 및 노후화 상태

- 건립 당시의 건축적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사진, 문헌 등)가 부족하여 현 상태에서 건물의 원형 및 변형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제약이 있음. 다만, 현재까지 다양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 전체적으로 건물 내·외부에 걸쳐 적지 않은 변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현재에도 근린생활시설(카페)로 활용 중에 있어 건물의 퇴락 및 노후화 정도는 비교적 양호한 상태임.

4) 문화재 보존관리 여건 및 주변 환경

- 동 건물이 위치한 곳은 과거 개항 당시 청국조계지로서 오늘날도에 중국풍 건축물이 군락을 이루어 현존하고 있음.
- 또한, 동 건물을 포함한 일대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주변이 난개발로 인한 경관 등이 훼손될 위험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5) 문화재 활용계획의 검토

가. 보존관리 계획과의 부합성

- 소유주는 남아 있는 원형의 흔적들을 잘 유지하면서 미술관 및 카페로 활용하고자 하나, 현재 근린생활시설(카페)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원형 고증 없이 리모델링된 것으로 보임.

나. 계획의 실현가능성

- 동 건물이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으로 진정성 있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원형 회복과 함께 공공성이 담보된 계획 수립, 그리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6) 동일 유형 기 등록 문화재와의 가치 비교·검토

- 개항기 인천 개항장 인근에 일종의 근린생활시설로 건립된 유산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로는 ‘인천 선린동 공화춘’, ‘인천 구 대화조 사무소’ 등 다수가 있음. 이밖에도 목포, 군산 등 다른 개항도시에도 다수의 사례가 있으며, 이들 시설은 다양한 제도적 틀 속에서 공공의 목적 등으로 보존·관리·활용 되고 있음.

7) 등록가치 의견

- 원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게다가 건축적 내력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문화유산으로서의 진정성 등을 확인하는데 적지 않은 제약과 한계가 있음.
- 또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되는 과정에서 용도변경 등이 이루어져 물리적인 변형이 다수 발생된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현재의 상태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서의 등록 가치는 다소 미미하다고 판단됨.

5.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사적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보수를 위한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2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 결과	처리 일자
사적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제546호)	부산서구	부산시립 박물관 임시수도 기념관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 보수> (1) 허가 받는 자 : 부산시립박물관 임시수도기념관 (2) 허가 내용 ○ 대상위치 : 부산 서구 임시수도기념로 45 ○ 내 용 - 설계금액 : 19,929천원 - 지붕 기와고르기, 굴뚝 덮개 동판씩우기, 내부 회벽 보수, 흙통 보수 (3) 허가기간 : '21.12.6. ~ '22.2.28. (4) 허가조건 ○ 수리 현장에 안전 관리자 선임하여 산업재해 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 총괄	조건부 허가	'21.12.6.
국가등록 문화재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 (제403호)	전북 김제	김제시장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 작업장 해체보수> (1) 허가 받는 자 : 김제시장 (2) 허가 내용 ○ 대상위치 :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875 ○ 내 용 : 작업장 해체보수 - 연목이상 해체 후 보수 및 보강 - 지붕보수 : 군새 설치, 양토 제거, 초가 이영잇기 3겹1단5회 등 (3) 허가기간 : '21.12.6. ~ '22.12.5. (4) 허가조건 ○ 연목 등 부식재 교체는 지붕 해체 후 관 계전문가 자문을 받아 추진, 보강목은 보 강재임을 알 수 있도록 부재에 표기	조건부 허가	'21.12.6.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출석 12명 / 원안접수 12명